

요 약 문

1. **과제명** :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 **연구기간** : 2005. 5. ~ 2005. 12.

3.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003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도록 하였다. 주 40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일정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된다. 금융보험, 공공부문, 1,000인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 1일 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06. 7. 1, 50인 이상 사업장은 2007. 7. 1, 20인 이상 사업장은 2008. 7. 1, 그리고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 내에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법정 근로시간은 단축되어도 실 근로시간은 감소되지 않을 수 있고, 실 근로시간이 감소되지 않으면 산업재해가 감소되지 않을 수 있다.

[가설 2] 우리나라와 같이 현재의 임금수준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기업에서는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동강도를 강화할 수 있고, 노동강도가 강화되면 산업재해가 감소되지 않을 수 있다.

[가설 3]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가 생산에 종사해야 할 절대적인 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기업에서는 생산량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나, 이 때 고용된 신규 인력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산업재해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설 4]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주 5일 근무제가 정착이 되면 근로자 들 중에는 주 2일간의 여유시간에 이중 직업(Two Job)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주중의 정규근로시간에 산업재해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근로시간 단축과 산업재해와의 관계를 분석할 때는 근로시간 단축과 산업재해와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이에 작용하는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 요인을 충분히 고려한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 산업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 요인들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단축과 산업재해와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4.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1) 근로시간 단축과 산업재해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발행된 문헌을 조사하였다.

2) 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재해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연도별로 근로시간과 산업재해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 3)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2005년에 조사한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시간과 산업재해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 4) 근로시간이 단축된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의 산업재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총 70개이었으나 이 중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모두 기재한 26개 사업장의 자료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 5) 근로시간이 단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근로자는 총 864명이었다.
- 6) 국내 사업장 중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 7)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고, 연구진 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산업재해 감소 방안을 마련하였다.

5. 연구결과

- 1)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 감소된 시기의 산재율의 변화
 - 연도별로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실 근로시간도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재율도 연도별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모든 업종에서 동일한 추세를 보였다. 또한 근로시간의 변화율과 산업재해의 변화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이 감소되면서 산재율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 연도와 근로시간의 변화율을 독립변수로 하고 산업재해의 변화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Box-Cox 방법에 의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전 산업과

제조업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근로시간 변화율에 대한 산재율의 탄력성은 전 산업에서는 3.7, 제조업에서는 5.3으로 나타나, 근로시간이 1% 감소하면 산재율은 전 산업에서 3.7%, 제조업에서는 5.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근로시간과 산업재해와의 관계 : 2005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자료 분석

- 대상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산재율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근로시간이 길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경우 산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산재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을수록 산재율이 높았으며, 비제조업에서는 근로시간이 길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수록 산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사업장에 대한 시계열 분석 결과

- 근로시간이 단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개입 시계열분석을 시행한 결과 산재율의 추정량이 음의 값을 나타내 근로시간이 단축된 이후 산재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이후 근로자 개인의 건강상태 변화

- 대상자의 실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주당 평균 49.8시간이었으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주당 평균 45.5시간으로 나타나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실 근로시간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보다 5.5시간 더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실 근로시간이 증가하였거나 변화가 없는 경우에서 피로도는 조금 증가하였고, 삶의 질은 조금 낮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연장근로나 특근횟수는 많아졌고, 하청이나 외주는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실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는 휴일횟수는 증가하였지만 작업속도는 빨라졌다고 하였다.

- 근로시간이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단계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근로시간이 1시간 증가하면 피로도 점수는 0.01점 증가하였고, 노동강도 점수는 0.01점 증가하였으며, 삶의 질 점수는 0.01점 감소하였고,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0.06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상태를 예측하기 위하여 공변량 구조분석인 LISREL 분석을 시행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생활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나타난 근로자들의 생활의 변화는 근로자의 신체적 건강상태, 정신적 건강상태, 피로도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나,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들의 생활의 변화를 경유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5) 근로시간이 단축된 사업장의 사례조사 결과

-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 이후 산재율이나 공상율은 감소된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직장에서는 업무량이 많아지고, 작업속도가 빨라졌으며, 노동강도가 강화되었다고 하였다.

- 노동강도의 강화로 근로자들이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골격계질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사업장이 많았으며, 근로자들의 업무량 증가로 직무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어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평가하고,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를 위해 심리상담사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 직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사업장이 많았으며, 사업장 내 동호회 활동이 활발해 졌고, 봉사활동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말을 이용한 가족시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곳도 많았다.
-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마련은 근로시간 단축만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과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정부의 제도정비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결론 및 제언

- 1)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산업재해가 감소되기 위해서는 실 근로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근로자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노동강도를 완화할 수 있는 종합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 3) 기존 인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의 개편, 직무분석, 근무방식의 전환 등이 고려되어야겠다.
- 4) 증가된 휴일의 시간을 건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자기 개발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근로시간 단축 이후 안전보건관리를 잘 수행하고 있는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여 널리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중심어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장시간 근로, 산업재해, 산재율